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10월 14일 '한국불교의 미래, 포교의 길'을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입재식 모습. 맨 앞이 회주 자승 스님.

“전략적 포교로 한국불교 중흥 이끌자”

상월결사 · 포교원 10월 14일

포교 주제 대중공사 개최

교계 언론 주관해 토크콘서트로 진행
종회의원 등 100여 명 모여 대토론회
상월삼보순례단 전원 참가, 관심보여
덕문 스님 '신뢰회복 · 전략포교' 강조
포교원, 목소리 경청 · 정책수립 약속

창녕 부곡면=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심과 원력으로 한국불교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한 포교결집의 장이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이하 삼보순례)에서 열렸다.

상월결사(회주 자승)와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은 10월 14일 경남 부곡 로얄호텔 대연회장에서 천리순례 대중공사 '한국불교의 미래, 포교의 길'을 개최했다. 포교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중공사는 종회의원 포교연수를 겸하고 포교정책워크숍 성격도 함께 지닌 자리로 1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등이 참여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영상 인사말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중공사에서 발표를 경청하는 대중들의 모습.

을 통해 “우리의 삶이란 간절하지 않으면 원력과 신심이 나오지 않는다. 중흥이란 학인이 학인의 자리에서, 주지가 주지소임에 맞게 열심히 살면 중흥이란 말은 필요없다. 교수가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면 이런 말이 필요없다”며 “불교 중흥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오늘 지혜로운 사부대중 여러분이 모인 부곡의 결집이 ‘칠엽갈’이요, 포교 정책 워크숍은 ‘21세기 결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부 ‘언론에서 주목한 포교사례’에서는 ‘언론에서 주목한 포교사례’가 소개됐다. 현대불교신문의 ‘포스트코로나 랜선기부’부터 ‘사찰경영 화원제 도입으로 변화’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포교와 경영 방안을 담은 기획사가 소개돼 높은 관심을 받았다.

2부 포교콘서트 ‘달라지고 있는 포교현장’은 포교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이들과 대중들과의 소통의 현장으로 펼쳐졌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화엄사의 지역 포교 사례를 대중에 소개하고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회로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부산 대운사 쿠무다 주지 주석 스님, 김해 동림선원 지도법사 천조 스님이 패널로 참여했다.

영상소개에서 지리산 화엄사의 경우 요가 대화와 화엄제 등 문화포교에 이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2018년 개원한 김해 동림선원은 명상학교를 통한 청년포교와 사찰 한계를 넘은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문화포교를 소개했다. 부산 대운사는 쿠무다 카페를 통한 문화포교를 선보였다.

패널로 나선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온 불교 호감도 증가와 젊은 층의 비호감도 증가에 대해 분석결과로 불자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함을 호소했다.

덕문 스님은 “전략적인 포교가 필요하다. 도심과 산중 사찰이 괴리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뿐만 아니라 총무원과 교구본사들이 함께 고민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농어촌 사찰의 포교 한계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사찰의 자연환경과 지역 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한 포교전법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지역에서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다. 이런 작은 기반 하나하나가 닦일 때 불교가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상과 비대면 포교를 진행 중인 동림선원의 지도법사 천조 스님은 “자기도전포상제를 통해 청소년 포교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해 학부모 포교를 함께했다”며 “아이들 이름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사찰이 불사와 아르바이트 등의 대행처가 되는 청년포교가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패널인 쿠무다 주석 스님은 카페뿐만 아니라 예술인 지원도 포교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100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을 후원하며 좋은 불교음악 등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3부 ‘수행의 길, 포교의 길’에서는 각계의 포교활성화가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전법포교를 위한 재정 확충부터 신도 안내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었다.

해당QR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현대불교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공’에 올린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뉴스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반’ 이색 참가자

“투닥대도 함께 정진 행복”

자매 함께 순례 정해림 · 정유림 씨

정해림(27) 씨는 지난해 자비순례를 완주하고 수국사에서 수행활동도 열심히 하는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다. 이번 천리순례에는 동생 정유림(24) 씨와 함께 참여했다. 스노보드팀 합숙으로 인해 뒤늦게 합류한 정해림 씨는 “지난해 자비순례는 다했는데, 동생을 추천해서 먼저 보았다. 동생에게 추천했더니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동생 정유림 씨는 언니와의 정을 드러냈다. 정 씨는 “언니가 없었을 때는 의지할 때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했지만 다른 언니들과 보살님들이 잘 챙겨주셨다”며 “그래도 가방을 들어줄 사람 있어 좋다”고 웃었다.



“다음엔 첫째 딸 남친도”

모녀 함께 순례 하정수 · 박선민 씨

봉은사 신도인 하정수 씨(56)는 둘째 딸 박선민(31) 씨와 함께 이번 순례에 참여했다. 하 씨는 인도와 스리랑카 성지순례를 첫째 딸, 둘째 딸과 함께 다녀왔다.

이번 순례에는 직장생활로 인해 첫째 딸은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자 가족답게 첫째 딸은 남자친구와 함께 화엄사 순례 때 내려와 동참했다. 하 씨는 딸의 남자친구까지 내년에는 같이 순례하자고 권유했고,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딸의 남자친구도 좋다고 응답했다. 하 씨의 신심 넘치는 적극성에 이른바 불자가족의 무한 인연 맺기가 진행되고 있다.



“부부의 연 더욱 깊어져”

부부 함께 참여 윤재웅 · 이세옥 씨

기상시간이 늦어진 11월 새벽 4시, 순례단 숙영지 한편에서 노트북을 켜고 시를 쓰고 있는 남편과 그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아내가 있었다.

바로 윤재웅 동국대 교수(60)와 아내인 이세옥 씨(60)다. 예비순례부터 자비순례, 이번 천리순례, 그리고 불자인연 맺기의 장인 수미산원정대 등 윤 교수는 상월결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적극적인 남편의 활동 뒤에는 동갑내기로서 50년 지기 도반이기도 한 아내의 지원이 있었다.

“진짜 좋은 거면 같이 좋은 거죠. 부부끼리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다시 또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주지 진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Tel 055)352-1150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재)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호스피스병동도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따라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석남사 부근)
요양병동 입원상담 대표번호 052)255-8400
호스피스병동 24시간 상담 052)255-8457